

가족 여행 브리핑 · 2026년 9월

우리 가족 이베리아 여행

스페인 · 포르투갈

2026. 10. 6 (화) → 10. 18 (일) · 12박 13일
바르셀로나 → 세비아 → 리스본 → 포르투



13일, 두 나라, 네 도시

13

일간

2

개 나라

4

개 도시

3

개 투어

인천

10/6 밤 출발

바르셀로나

3박

세비아

2박

리스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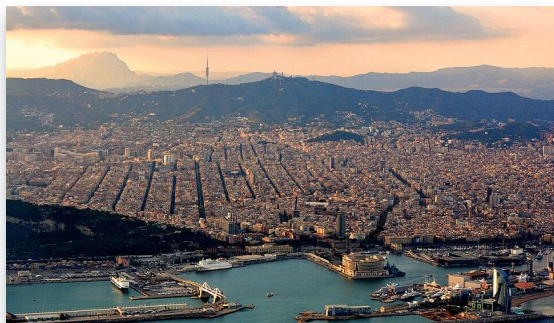
3박

포르투

2박

인천

10/18 귀국



바르셀로나



세비아



리스본



포르투

하루하루, 이렇게 다닙니다

날짜	도시	주요 일정
10/6 화	인천 →	18:20 출국 (아부다비 경유)
10/7 수	바르셀로나	07:35 도착 → 가우디 투어 (사그라다 내부까지)
10/8 목	몬세라트·지로나	종일 가이드 투어 — 검은 성모 · 중세 지로나
10/9 금	바르셀로나	피카소 미술관 · 보케리아 시장 · 해변 · 벙커 노을
10/10 토	세비야	비행기 이동 → 스페인 광장 (10년 만의 재방문)
10/11 일	세비야	알카사르 궁전 · 대성당 · 저녁 플라멩코
10/12 월	리스본	비행기 이동 → 강 건너 노을 저녁 (폰투 피날)
10/13 화	신트라 일대	종일 투어 — 페나성 · 호카곶 · 나자레 · 오비두스
10/14 수	리스본	벨렝 수도원 · 에그타르트 원조집 · 알파마 · 파두
10/15 목	포르투	기차 이동 → 히베이라 강변 · 다리 위 노을
10/16 금	포르투	렐루 서점 · 아줄레주 역 · 포트와인 시음 · 만찬
10/17 토	포르투 →	마제스틱 카페 브런치 → 16:05 귀국 출발
10/18 일	인천	22:15 도착 — 집으로!

10/7 - 10/9 · 3박

바르셀로나

테마: 가우디의 도시 — 도착하자마자 하이라이트

- 도착 첫날 오후, 한국어 가이드와 가우디 투어 — 카사 밀라·바트요, 구엘 공원,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까지
-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올해 6월, 144년 만에 완공 선포! 우리는 완공 첫 해에 갑니다
- 둘째 날은 몬세라트·지로나 버스 투어 (걷기 부담 적음)
- 셋째 날은 느긋하게 — 피카소 미술관, 시장 구경, 지중해 해변 산책, 숙소 뒷동산에서 노을



이런 곳들을 봅니다



사그라다 파밀리아

가우디 필생의 성당 — 유리빛 내부가 백미



구엘 공원

동화 같은 모자이크 공원 · 바르셀로나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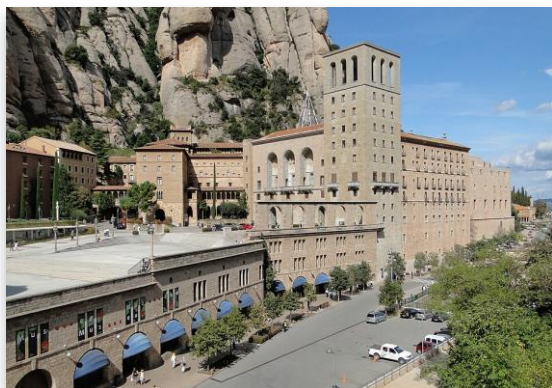
카사 밀라 · 바트요

물결치는 가우디의 건축 거리



보케리아 시장

유럽 최대급 재래시장 — 점심은 여기서



몬세라트

바위산 속 천년 수도원 · 검은 성모



지로나

강변 색색 집들의 중세 도시 (왕좌의 게임 촬영지)



바르셀로네타 해변

지중해 산책 — 10월엔 걷기 딱 좋은 날씨



피카소 미술관

소년 피카소의 성장기를 담은 미술관

10/10 - 10/12 · 2박

세비야

테마: 안달루시아의 정열 — 그리고 추억의 재방문

- 10년 전 가봤던 스페인 광장을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— 그때 그 자리에서 가족사진 📷
- 알카사르 궁전: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+기독교 혼합 궁전 (왕좌의 게임 촬영지)
- 대성당의 히랄다 탑 —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라 부모님도 끝까지 오를 수 있어요
- 저녁엔 본고장 플라멩코 소극장 공연 · 1670년부터 이어온 타파스 바에서 저녁



10/12 - 10/15 · 3박

리스본

테마: 대항해시대의 수도 — 노을과 파두

- 도착 첫 저녁: 페리 타고 강을 건너, 노을 지는 리스본을 마주 보며 저녁식사 (폰투 피날) 🌅
- 벨렝 지구 — 대항해시대 제로니무스 수도원, 그리고 에그타르트 원조집
- 알파마 골목 — 우리 숙소가 바로 이 동네! 28번 노란 트램이 문앞을 지나요
- 마지막 밤엔 포르투갈의 영혼, 파두 공연



10/13 · 종일 가이드 투어

하루에 네 곳 — 포르투갈의 명장면들



페나 성 (신트라) — 구름 위 동화 성 · 유네스코



호카곶 — "여기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"



나자레 — 빅웨이브 절벽 마을



오비두스 — 중세 성벽 마을 · 체리주

버스로 편하게 도는 날 🚌

아침 8시 40분 출발, 저녁 7시 복귀 — 이동은 전부 앉아서, 걷기는 명소 안에서만

10/15 - 10/17 · 2박

포르투

테마: 강과 와인의 도시 - 여행의 피날레

- 리스본에서 특급열차로 3시간 — 창밖 여행도 코스입니다
- 동 루이스 다리를 걸어서 건너며 보는 노을 — 포르투 최고의 장면
- 해리포터에 영감을 준 렐루 서점, 2만 장 타일 벽화의 상 벤투 역
- 포트와인 셀러에서 시음 🍷 → 마지막 만찬 → 떠나는 날 아침엔 1921
년 벨 에포크 카페에서 브런치



이런 걸 먹으러 갑니다 🍴



타파스 (스페인)

조금씩 여러 접시 — 1670년 노포에서



에그타르트 (리스본)

1837년 원조집 파스테이스 드 벨렝



바칼라우 (포르투갈)

대구 요리 — 마지막 만찬 메뉴



포트와인 (포르투)

셀러 투어 + 시음 — 달콤한 디저트 와인

알아두면 좋은 식사 문화

스페인 저녁은 8시 시작이 정상 · 식당에서 물은 유료 · 포르투갈은 식전 빵·올리브가 유료(안 먹으면 거절 OK) · 아침은 숙소에서 간단히

어떻게 이동하나요?

✈ 인천 ↔ 유럽

에티하드항공 · 아부다비 경유

갈 때 밤 비행, 올 때 마드리드 환승

✈ 바르셀로나 → 세비아

라이언에어 1시간 40분

10/10 아침 — 6시 기상 ①

✈ 세비아 → 리스본

TAP 포르투갈 1시간 10분

10/12 오후 — 여유로운 이동

🚆 리스본 → 포르투

특급열차 3시간

10/15 아침 9시 — 7시 반 기상 ②

🕒 시차

스페인: 한국보다 7시간 늦음

포르투갈: 8시간 늦음 (스페인과도 1시간 차!)

한국 밤 9시 = 스페인 오후 2시

한국 가족·지인과 연락은 우리의 오전 = 한국의 저녁 시간대가 좋아요

* 일찍 일어나는 날은 딱 3일 — ①②와 신트라 투어일(10/13, 7시 20분). 나머지는 느긋해요!

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— 소매치기

조심 구역

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· 리스본 28번 트램 · 지하철 출퇴근 시간 — 관광 명소 인파 속이 그들의 일터예요

가방은 앞으로

지퍼 있는 가방을 몸 앞에 · 뒷주머니에 폰/지갑 절대 금지 · 식당에서 가방을 의자에 걸지 않기

분산 보관

현금·카드는 가족끼리 나눠서 · 여권은 숙소에 두고 사본(폰 사진)만 휴대 — 단, 기차 타는 날은 운전면허증 실물 필수!

말 거는 사람

서명해달라, 팔찌 채워준다, 꽃을 준다 — 전부 정중히 무시하고 지나가기. 경찰 사칭 검문은 응하지 말고 호텔로

각자 챙길 것

필수

- 여권 (10월 초까지 전원 준비 완료)
- 운전면허증 — 포르투갈 기차 검표용, 4명 모두!
- 본인 카드 1장 + 비상 현금 (유로)
- 복용 중인 약 + 상비약 (소화제·진통제·밴드)
- 휴대폰 · 충전기 · 보조배터리

권장

- 많이 걷는 날 대비 편한 운동화 (제일 중요!)
- 겹옷·바람막이 — 낮 20~25도, 밤 12~15도
- 호카곶·페나성은 바람이 강해요
- 선글라스 · 선크림 (10월에도 별이 좋아요)
- 작은 접이식 우산 · 물통

일정·지도·예약서류, 전부 폰 안에 있어요

- 날짜를 누르면 그날 일정이 시간순으로 — 길찾기 버튼이면 구글맵이 바로 열려요
- 지도 화면에선 하루 동선이 번호로 표시되고, 캐릭터가 경로를 따라 움직여요
- 누가 수정해도 온 가족 폰에 자동 반영 (30초 안에)
- 항공권·입장권 서류도 앱 서류함에 모아둘 예정

설치: 아래 QR을 찍고 → 브라우저 공유 메뉴에서 "홈 화면에 추가"



 QR 찍으면 바로 열려요

iberia-cardnews.jihyeon3.workers.dev/planner.html

💡 매일 아침 보내드린 카드뉴스 아카이브도 같은 사이트에 있어요

¡Buen viaje! Boa viagem!

좋은 여행 되세요 – 우리 넷이서!

10월 6일 (화) 오후 3시 30분 ·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만나요 ✈